

여행가기 좋은 ‘봄’이 왔나봄... LCC 할인하나 ‘봄’!

벚꽃 등 꽃놀이 나들이객 위해
3~4월 할인 프로모션 평평
1+1 항공권 이벤트도 살펴봐야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봄철 여행을 준비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특가 항공권을 선보이고 있다.

12월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벚꽃 나들이객을 위해 13일까지 총 36개 국내·외 노선에 대해 3~4월 출발 항공편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국내 노선은 김포~제주, 청주~제주,

군산~제주, 부산~제주 등 편도총액운임 기준 최저가 1만3900원부터 구매 가능하다. 국제선은 편도총액운임 최저가 오사카(간사이) 4만5900원, 후쿠오카 6만900원 등 일본 12개 노선을 포함해 블라디보스토크 8만1900원, 타이베이(타오위안) 7만6900원, 방콕 10만5900원부터 구매 가능하다.

특히 이번 특가 이벤트엔 지난 1월 신규 취항한 베트남 나트람 노선과 오는 15일 신규 취항하는 베트남 푸꾸옥 노선이 포함돼 편도총액운임 최저가 10만9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티웨이항공도 3~5월 봄 여행을 준비

할수있는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ttw 특가 이벤트는 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2월 24일까지 일주일 간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대상은 김포·대구·광주·무안에서 제주로 왕복하는 국내선과 인천과 대구, 부산, 김포, 제주, 무안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이다. 탑승기간은 국내선의 경우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제선의 경우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국내선 편도 총액운임(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이용료 포함)은 1만 6300원부터다. 국제선의 경우 기타쿠슈·사가·구마모토·오사카 4만 300원부터, 도쿄 4만 5300원, 마카오 6만 2500원, 클락 7만 7500원, 블라디보스토크 8만 6660원, 호찌민 8만 8700원, 괌 11만 6080원부터 등이다.

에어부산은 한 명 가격으로 두 명이 이용할 수 있는 1+1 항공권 이벤트를 실

시한다. 에어부산은 13일부터 20일까지 일본 노선, 18일부터 24일까지는 중국 및 동남아, 그리고 대양주 노선의 1+1 항공권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항공권은 에어부산 홈페이지 모바일 웹/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탑승기간은 4월 30일까지다.

이번 1+1 항공권의 해당 노선은 일본 지역은 후쿠오카·오사카·삿포로·도쿄·나고야 노선이며 중국 지역은 쑤아·징다오·홍콩·마카오, 동남아 지역은 타이베이·가오슝·세부·시엠립·다낭·괌·비엔티안·하노이, 마지막으로 대양주는 괌 노선이다.

제주항공은 오는 17일까지 '제주항공 리프레시 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JT 멤버스워크'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

다. 단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또는 모바일 웹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다. 국내선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운임 편도항공권 기준 최저가는 김포~제주, 청주~제주노선은 각 2만2200원, 광주~제주 2만200원 등이다.

외국항공사들도 할인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베트남항공이 2월 하노이·호찌민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인천·부산에서 출발하는 하노이·호찌민 노선이 대상이며 예약과 발권 기간은 내달 31일까지다. 베트남항공 이코노미클래스 항공권을 하노이 23만1500원부터, 호찌민 28만8200원부터 살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KT, 서울랜드에 '5G 테마파크' 만든다 LG전자, GS리테일과 손잡고 '장보기' 혁신

5G네트워크·VR 놀이기구 등 적용

KT는 11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랜드에서 서울랜드와 손잡고 '세계최초 5G 테마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KT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과천시 서울랜드에 ▲5G 네트워크 ▲지능형 CCTV 기가아이즈 ▲KT 에어맵 코리아 ▲5G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 ▲가상현실(VR)·혼합현실(MR) 놀이기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T는 서울랜드 전역에 5G 네트워크를 구축 완료하고, 이용자들이 KT 5G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한 테마파크 이용을 위해 KT의 지능형 CCTV 기가아이즈를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리와 대응을 위해서는 KT 에어맵 코리아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왼쪽)과 김대중 서울랜드 대표가 지난 11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랜드에서 '5G 테마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

관련 시스템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주요 놀이기구의 싱크뷰(무선통신 모듈이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 등 5G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를 적용해 탑승 이전 간접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VR·MR 놀이기구도 나온다. /김나인 기자 slkni@

홈IoT 기반 쇼핑 서비스 론칭

매장 구입 이력 분석·제품 추천 등

LG전자가 GS리테일과 손잡고 홈IoT 기반 쇼핑 서비스를 론칭한다.

LG전자는 11일 GS리테일과 IoT 기반 장보기 서비스와 오프라인 매장 혁신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는 양사가 홈IoT를 기반으로한 장보기 서비스와 가전 사용 패턴에 따른 고객 맞춤형 제품 추천 서비스, 5G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오프라인 매장 준비 등 내용을 담았다.

홈 IoT 기반 장보기는 LG전자 스마트 가전에서 음성명령을 통해 물건을 주문하는 서비스다. 또 LG전자는 스마트 가전을 통해 GS리테일 매장에서 구입한 이력을 분석하고 맞춤 제품을 추천해준다.



LG전자와 GS리테일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구매서비스 제공을 위한 MOU를 맺었다. LG전자 황정환 융복합사업개발부문장(왼쪽), GS리테일 김용원 디지털사업본부장 /LG전자

아울러 양사는 LG전자의 최신기술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을 첨단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 융복합사업개발부문장 황정환 부사장은 "LG전자가 보유한 첨단 기

술과 GS리테일이 축적해온 유통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쇼핑 문화를 만들 것"이라며 "고객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네이버랩스 새 대표에 석상옥 부문장 내정

네이버랩스는 석상옥(사진) 자율주행 머신부문장이 네이버랩스의 새 대표로 내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석상옥 대표는 3월 1일부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2013년 네이버의 사내 기술연구 조직으로 출발해 2017년 1월 별도 법인으로 분사한 네이버랩스는 인공지능,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최첨단 미래 기술들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네이버의 기술연구개발(R&D)법인이다.

석상옥 신임 대표는 네이버랩스 설립 이래 로보틱스 부문 리더를 맡아 5G 브레인트로봇 엠비텍스, 자율주행 로봇 어라운드 등 세계적으로도 놀랄만한 연구개발 성과를 보여줬다.

네이버는 "석 대표가 네이버랩스의 그동안의 연구개발 비전과 전략을 지속적



으로 추진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판단, 내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석상옥 신임 대표는 1975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학사) 및 동 대학원을 졸업(석사)하고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글로벌 자동화/계측 솔루션 기업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와 삼성전자를 거쳐 2015년 9월 네이버에 합류했으며, 2017년 네이버랩스 설립 이후 로보틱스 부문 리더를 맡아 연구개발을 주도해 왔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동국제강, 15년만에 CI 컬러체계 개편... 제작물 활용도 제고

동국제강이 15년 만에 CI(Corporate Identity) 컬러체계를 개편했다.

12일 동국제강에 따르면 현재 CI는 동국제강이 2004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채택도가 높은 블루와 레드를 메인 컬러로 해 제작했다. 그러나 CI를 적용하는 제작물 범위가 점차 넓어짐에 따라 C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5년만에 개편을 실시하게 됐다.

변경된 CI는 기존 컬러 계열을 유지하는 대신 제작물에 적용시 조화롭고 세련된 느낌이 들도록 채도를 낮췄다. 두 가지 컬러는 동국제강을 상징하는 색으로 '동국블루(Dongkuk Blue)', '동국레드(Dongkuk Red)'로 명명했다.

동국블루는 동국제강의 투명성, 자신감과 품격을, 동국레드는 자부심, 열정,



DONGKUK BLUE DONGKUK RED

의지, 노사간 화합과 결속을 나타낸다. 이 두 가지 색의 조합은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영속적으로 발전하는 동국제강의 기업상을 상징한다.

동국제강은 이번 새 CI를 활용해 향후 그룹사 통합 문서 양식과 기업 소개 브로슈어, 제품 카탈로그, 홈페이지, 명함, 사무용품, 기념품, 공장 사인물 등 다양한 제작물을 제작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